문화 향기에 실려오는 '나눔사랑'

'소외된 이들에게 문화 향기를 전한다.'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 공연단체들의 문화나눔은 2010년에도 계속된다. 이들 단체는 직접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 다양한 계층을 초청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직접 그들을 찾아가 문화를 나누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군인과 노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박물관 제공〉

박물관·미술관·공연단체들 복지시설 등 다양한 계층 찾아

전시 초청에 카드 만들기에 발레 갈라까지 '아름다운 동행'

광주박물관이 진행하는 '뮤지엄+아름다운 동행'은 대표적인 문화 나눔 프로그램이다. 문화 소외계층 대신 '문화 희망 계층'이라는 용어를 쓰는 박물관은 군인과 노인, 장애인과 일반인, 저소득층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전시실을 관람하고 이론 수업과 체험학습을 함께 진행하며 문화 세례를 듬뿍 받는다. 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리 문화의 다양한 숨결을 만날 수 있는 전통 그림 카드 만들기, 메화 메모판 만들기, 열두 동물 열두 달력 만들기, 전통 문양 염색 액자 만들기, 전통 다식과 전통차 만들기, 옛 그림이 담긴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눈에 띄는 특징은 각 계층이 서로 어우러지며 함께 박물관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 활동까지 함께 한다는 점이다. 군인들이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함께 부채를 만들고, 일반인들이 장애인들과 어우러져 카드를 만드는 식이다. 참가비는 무료로 박물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570-7053.

광주시립미술관도 보육시설 아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립미술관의 학예연구사와 미술관이 위촉한 강사를 보육시설에 파견해 이곳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부터 매달 1~2차례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보육시설인 형제사를 방문해 미술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도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매달 지역 보육시설을 방문해 다양한 미술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립예술단체들도 올 한해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 문화 나눔을 진행한다.

지난해 광주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풀 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쳤던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올 상반기 중 광주교도소와 순천교도소, 은혜학교에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악관현악단과 무용단은 초·중학교 등 미래의 잠재 관객인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을 진행한다. 국악관현악단은 성덕중학교와 일동초등학교 등에서 공연을 가지며 무용단은 불로초, 봉선초, 선광학교 등에서 유명 작품의 하이라이트를 모아 공연하는 갈라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시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3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현재 광주시는 각 구청을 통해 수요 계층 조사를 마친 상태며 조만간 광주예총과 위탁 계약을 체결, 공연을 시작할 예정이다.

2010년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8천100만원이다. 지난해 예총은 행복요양원, 전남성노원,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등 모두 54곳에서 공연을 진행했으며 극단 진달레 피네,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하늘다래예술단 등 지역 문화단체들이 참여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보고, 느끼고, 만지고, 올라가 보자

해외언론 시선집중

뉴욕타임스 등 올해 볼만한 전시로 소개

고은 시인의 동명 시집 '만인보'를 전시주제로 정한 제8회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의 이색 기획에 대해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과 미술 전문 사이트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 미국 대표 일간지인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 뉴욕에 기반을 둔 미술전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플럭스'(e-flux·www.e-flux.com)는 잇따라 광주비엔날레 소식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2일 발행된 문화섹션(Art & Design)면에 '보고, 느끼고, 만지고, 올라가 보자'(See It, Feel It, Touch It, Climb It)'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광주비엔날레의 주제와 의미를 상세히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오니 감독의 말을 빌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이미지들로 얽혀진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폭넓은 탐구작업을 보여줄 것"이라며 "여타 비엔날레와는 차별화된 컨셉일 뿐 아니라 20세기 초반의 작품들과 함께 사진, 고대유물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전시주제와 관련해 신문은 "고은 시인의 서사시 '만인보(萬人譜)'에서 차용된 것"이라며 고은 시인과 '만인보'의 탄생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곁들였다.

현대미술 관련 각종 전시와 행사 등 최신 정보를 웹사이트와 이메일 등으로 전세계에 전달하는 'e-flux' 역시 15일 광주비엔날레 주제발표 소식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광주비엔날레를 소개한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e-flux'는 전세계 미술관과 비엔날레, 언론, 아트페어, 큐레이터, 작품수집가 등 5만여명에게 미술 소식을 전송해 주는 미술전문 사이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하정웅 컬렉션-정적의 시' 전

시립미술관 5월 3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오는 5월30일까지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을 소개하는 '하정웅 컬렉션-정적의 시'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운, 고영훈, 김진석, 김창열, 마리 로랑생, 문승근, 송현숙, 오이량, 오치균, 이문형, 이우환, 이호철씨의 작품 27점을 선보인다.

특히 사물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을 통해 사물과 공간, 위치, 상황, 관계 등에 접근하는 예술인 '모노하'(物派)의 세계적인 작가 이우환의 1991년 작 '출항지' 등 유명 작품이 대거 출품됐다.

'출항지'는 과감한 여백 처리와 특유의 표면 질감을 살린 이우환의 예술 세계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또 이 지역 중견 판화가 오이량씨 '존재 시리즈'(EXISTENCE-WAVE)도 눈여겨 볼 작품이다. 파랑, 노랑, 황토색 등을 넣은 실리콘을 얇게 펴 말린 뒤 국수 가닥처럼 썰어 화면에 촘촘하게 붙이는 독특한 기법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 밖에 빛과 구름의 환상적인 하모니를 화폭에 담은 강운씨의 '순수형태-심상'과 재일교포 2세 작가인 문승근씨의 '무제' 등 현대 회화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 문의 062-613-714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운 작 '순수형태-심상'

광주 詩암송단체들 저자와의 만남 19일 드맹아트홀

시암송국민운동본부, 명시 50편 암송클럽, 주마등 시사랑회 등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암송 단체들이 소박한 시 암송 모임과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갖는다. 19일 오후 7시30분 광주 드맹아트홀에서 문길섭씨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행사의 1부에서는 조병기, 조금석씨 등 모임 회원들이 유안진의 '키', 노천명의 '푸른 오월', 피천득의 '축복', 허영자의 '나팔꽃', 나태주의 '행복' 등을 함께 암송한다.

2부에서는 예술 에세이 '축복'의 저자인 이강남(전 한국금융연수원장)씨를 초청, '침묵과 무의식의 정화-내가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갖는다. 강연후에는 간단한 다과회도 열린다. 문의 062-651-411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작은도서관 발전 세미나 23일 일곡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관 발전 세미나가 오는 23일 오후 2시 광주일곡도서관 강당에서 열린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정애(전남대 도서관장), 강신자(동림동작은도서관 명예관장), 박정희(책돌이도서관 관장)씨 등이 '도서관의 의의와 역할',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사례',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사례'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작은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문화프로그램체험에 관한 자료와 큰꿈 도서관의 운영사례 등이 포함된 '작은도서관 운영자료집'도 발간한다. 문의 010-4617-078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